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담당 부서 마이스산업과	배포일자	2022년 12월 5일(월) 총 2매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위해 민관 힘모은다
- 범시민 유치위원회 인천 유치 지지선언 ...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 다 할 것 -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천 유치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및 시의회 · 유관기관 · 국제기구 · 대학 · 마이스 및 관내기업 · 언론 · 단체 ·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유치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과 유치활동 전개, 불협 조성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지선언식은 APEC 유치 당위성 발표로 시작해 유치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 지지 선언문 낭독 및 서명, 유치기원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범시민 유치위원회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인천은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란 APEC의 3대 핵심요소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도시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임을 밝히고, 인천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 GCF 등 15개의 국제기구,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2014) 및 OECD 세계포럼(2018)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풍부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 라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기로 하신 범시민 유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인천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 고위관리 및 관료회의, 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만인 오는 2025년 11월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관련 사진은 16시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